



‘밤을 수놓는 반딧불,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빛으로 가득한 축제장’ 무주반딧불축제의 밤이 아름다운 이유, 기대되는 이유다.

무주골에 해가 지고 밤이 밝았으니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 속에서 다시 축제를 즐겨보면 어떨까? 낮의 열기가 가신 무주의 밤은 아름다운 야경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으니 말이다.

# 무주의 한밤 빛으로 가득

LED 강아지풀 조형물  
신비로운 분위기 연출

무주 어울터 대형 트리  
8월의 크리스마스 만끽  
상상만디숲 도서관 벽면  
활용 레이저쇼도 볼거리

별빛다리 불꽃 드론쇼  
반딧불이·별 구경도

### 부록

## 세계적 명성 얻은 무주 반딧불축제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특별시 무주의 가치를 가장 뜨겁게 분출할 수 있는 메가 이벤트로 1997년 ‘자연의 나라 무주’라는 주제로 첫선을 보인 이래 10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5년 연속 최우수축제, 5년 연속 명예문화관광축제, 2년 연속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축제, 2024 피너클어워드 에코투어리즘 분야 축제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무주반딧불축제는 지난해 3무(無) 축제를 완성시켰던 저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축제로서 방점을 찍을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반딧불이는 깨끗한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환경지표 곤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부터 ‘무주 일원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무주군은 이를 소재로 무주반딧불 축제를 개최하며 지구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정확한 명명 표기는 ‘반딧불이’가 맞고 ‘반딧불’은 반딧불이가 내는 불빛을 뜻한다. 전 세계적으로 2,100여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주에는 애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 운문산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다. 무주반딧불축제 기간에는 늦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

### ▲밤에 더 빛나는 축제장... 빛을 뿌려놓은 듯한 반디의 숲

한풍루가 있는 공간을 자연의 숲으로 꾸민다. 생태체험 숲속 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 대형 소나무 조형물이 초록빛을 내뿜으며 관객을 손짓하고, 500개가 넘는 LED 강아지풀 조형물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여기에 곤충과 반딧불 조형물, 반딧불 조명 등이 숲의 밤 풍경을 더욱 다채롭게 만든다.

새장 유도 조형물과 나비·꿀벌·개뿔벌레 조형물, 대나무 죽통 조형물도 은은한 빛을 발산한다.

10m 길이의 광섬유 터널은 원형 터널로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진입문처럼 이색적이다. P1 주차장에는 반딧불 레이저와 물레방아 포토존, 포리와 아로 조형물, 수목라인·수목등이 축제장의 밤을 수놓는다.

P2 주차장에는 형설지공 반딧불 책상과 도자기 풍경 터널이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 무주 어울터

8월의 크리스마스를 만끽할 수 있는 무주 어울터에는 대형 트리와 미니 트리가 기다린다. 높이 5.5m의 대형 큐브 트리 양옆에 2.5m의 소형 트리를 배치해 늦여름과 초가을에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어둠이 내린 축제장을 아름답게 밝히는 트리 앞에서 특별한 밤을 보내보면 어떨까.

무주상상만디숲 도서관 벽면을 활용한 화려한 레이저쇼도 펼쳐진다. 다양한 퍼포먼스와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 벽면 가득 쏟아진다. 무주반딧불축제를 즐기러 온 방문객들에 게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장 입구 계이름에 있는 라인조명과 간접조명, 수목 태양광 등도 무주반딧불축제의 근사한 야경에 한몫한다.

빛으로 가득 찬 무주의 아름다운 밤을 후회 없이 즐겨 보자.

### ▲하늘 위로 낭만을 뿌리는 별빛다리... 어둠 속 불빛 공연 드론쇼

남대천 별빛다리 위 수백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비행하며 쇼를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개막일과 폐막일에 ‘불꽃 드론쇼’로 업그레이드해 더욱 화려한 시간을 선물



한다. 감감한 밤, 드론이 그리는 세상에 취해 봐도 좋겠다.

### ▲꽃비가 내리는 무주 안성낙화놀이(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유산)

남대천에 붉은 꽃비가 내린다. 전통 불꽃놀이인 무주 안성낙화놀이가 물결치는 활활한 축제장의 밤. 수백 개의 낙화놀이 ‘타닥타닥’ 타들어 가면 어느새 피어오른 불꽃이 바람결에 춤을 추며 사방으로 흩날린다.

꽃이 지듯 물 위로 떨어지는 모습은 가히 환상적. 보고 싶노라면 아름다운 광경에 마음을 빼앗긴다.

### ▲화려함으로 눈 호강하는 불꽃놀이

별빛다리를 활활경에 빼지게 하는 또 다른 주자는 바로 불꽃놀이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불꽃쇼가 무주의 밤을 가득 채운다. 모양도 각양각색. 불꽃이 터질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니, 불꽃놀이를 보며 무주의 낭만을 느껴보면 어떨까.

### ▲반딧불이 만나고 별도 보고... 반딧불이 신비탐사 & 반디별 소풍

무주반딧불축제 프로그램 중 가장 핵심은 반딧불이 신비탐사. 버스를 타고 반딧불이를 만나러 떠난다. 해설사의 재밌는 설명을 듣다 보면 어느새 탐사지에 도착. 환경지표 곤충인 만큼 소음과 빛에 민감하니 플래시를 터트리거나 떠드는 일은 삼가야 한다.

진한 향수도 금물. 복장으로는 반바지와 샌들 보다는 긴바지와 운동화를 추천한다.

민반의 준비를 하고 숲에 들어섰다면 조용히 걸으며 깜빡깜빡 빛을 내는 반딧불이와 마주

해 보자. 성호를 그리듯 허공을 가르는 ‘반딧불이’ 그저 신비롭다.

이곳에서 비로소 무주가 왜 ‘자연특별시’인지 알게 된다.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오는 31일부터 9월 8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무주의 별을 만나는 ‘반디별 소풍’은 무주읍 소이나루 공원에서 열린다. 셔틀버스로 현장에 도착하면 별자리 설명과 ‘오늘의 별자리(관측 대상)’ 안내를 받는다. 나만의 반디별 찾기 시간에는 반디별 찾기, 망원경으로 반디별 관찰, 엽서 쓰기, 포토존 사진 찍기 등을 진행한다.

청정 무주의 밤을 수놓는 별들을 보며 빛나는 추억을 쌓아보면 어떨까. 반디별 소풍은 온 31일과 9월 1일, 6~7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 ▶ 미니 인터뷰 - 황인홍 무주군수 · 유승열 제전위원장

## “친환경축제의 진수 보여드릴 것”

#### 황인홍 무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지향하는 환경축제”라며 “환경지표 곤충이자 천연기념물인 ‘반딧불이’를 소재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전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에는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 축제로 전국 축제장에 일대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며 “특히 9일간 42만여 명이 방문을 했어도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진행된 축제로 행안부 차관 주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역축제 모범사례로 전파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는 ‘3무(無)’에 더해 ‘친환경축제’의 진수를 보여드릴 계획”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반딧불이와 함께 하는 9일간의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승열 제전위원장

유승열 반딧불축제 제전위원장은 “올해는 환경보호와 여행을 결합한 에코투어리즘 축제를 기대하셔도 좋겠다”고 축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유 제전위원장은 “친환경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넘어 방문객 누구나도 친환경 실천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축제장 내 쓰레기 줍기 등 인증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축제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 발전으로 한다거나 분리 수거함, 폐현수막을 활용한



그늘막, 폐 건설자재로 만든 테이블로 축제장 곳곳을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승열 제전위원장은 친환경 실천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며 “바가지요금을 없애기 위해 임점 업체를 공개 모집해서 음식 가격과 양을 사전 조율하고 행사장 내 모든 음식 부스에서는 대화용기를 사용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에코투어리즘 축제 기대”